베트남 ( 30개)

기념품 – 베트남 커피, 라임 소금, 코코넛 카라멜, 연꽃차

베트남 음식 키워드

|  |  |
| --- | --- |
| 재료 | 조리법 |
| ・ 보 Bo : 소고기 ・ 가 Ga : 닭고기  ・ 헤오 Heo : 돼지고기 ・ 까 Ca : 생선 ・ 에하 톰 Eha Tom : 새우 ・ 옥 Oc : 조개 ・ 믁 Muc : 오징어 ・ 꾸아 Cua : 게 ・ 쯩 Trung : 계란 ・ 자우 Rau : 채소 ・ 또이 Toi: 마늘 ・ 훙 Hung : 바질 | ・ 꾸온 Cuon : 말다 ・ 싸오 Xao : 볶다 ・ 너우 Nau : 삶다 ・ 찌엔 Chien : 튀기다 ・ 루옥 Luoc : 데치다 ・ 느엉 Nuong : 굽다 ・ 러우 Lau : 찌개 ・ 깐 Canh : 수프 ・ 고이 Goi : 무침 ・ 퍼/분 Pho/Bun : 누들 ・ 껌 Com : 밥 ・ 도 비엔 Do Bien : 해산물 |

# 하노이

인구 750만의 베트남의 수도이자 두번쨰로 큰 도시로 베트남의 역사,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1000년이 넘게 유지되고 있는 수도입니다.

5~9월은 매우 더운 널씨로 30도가 넘고 푹푹 찌는 더운 날씨

12~2월은 아침온도가 10도 이하인 쌀쌀한 날씨, 평균 기온은 17도

관광지

* 호안끼엠호수 (메인), 맥주거리, 야시장  
  대다수의 하노이 여행자들의 여행의 중심지!  
  호수 주변으로 산책로와 공원이 잘 형성되어 있고, 상권이 잘 발달되어 다양한 볼거리가 즐비한 곳, 프랑스령일 당시 건설된 유럽풍 건물들이 호수 남쪽에 많아요
* 구시가지  
  하노이 현지 분위기와 하노이 옛 중심지의 느낌을 만나러 가는 곳  
  수많은 맥주 노점들이 200m 정도 되는 좁은 골목에 가득한곳  
  1년 내내 밤에 싸게 맥주 한 잔 하실 분들에게 워너비 장소!
* 기찻길 마을  
  기찻길을 중심으로 실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실제 기차가 지나다니는 마을  
  집에서 기찻길과 거리가 3~5m 정도  
  기찻길과 사람들의 생활공간이 이쁘게 어우러진 하노이 기찻길 마을의 모습은 다양한 TV에도 이쁘게 나와 하노이 여행온 한국 여행객에게 유명한 포토존으로 꼽힌다.
* 하노이 고성 & 문묘  
  하노이에서 가장 큰 호수의 남쪽 지역으로 호치민 묘를 중심으로 하노이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있는 장소입니다. 내부에서 꽤 걸어다니는 관광지 입니다.

하노이 꼭 먹어야할 음식

* 쌀국수 (맛집 퍼 지아 주엔)  
  한국 관광객도 많고 현지인도 많이 찾는다는 그 유명한 쌀국수집  
  육수가 담백, 깊고, 진한맛 양껏 들어간 고기 고명이 든든한 한 끼 음식!  
  선불제이니 참고
* 분짜  
  분(가는 면발의 쌀국수)과 짜(숯불에 구운 돼지고기 경단)으로 국수와 고기를 적당히 섞어서 소스에 찍어먹으면 최고!
* 놈팃보코  
  비프 육포 샐러드 정도로 해석 될 만한 음식  
  파파야를 잘게 썰어 비프 육포와 땅콩과의 조화를 이룬 샐러드!
* 하노이식 반 꾸온  
  쌀가루에 돼지고기를 다진 것 등 다양한 것을 넣고 얇은 크레페 처럼 감싸 쪄냅니다. 반꾸온은 음식점마다 종류와 맛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고 가셔야하는 점!  
  그럴싸한 반꾸온을 맛볼 수 있는 곳은 빈콤타워가 있는 바 찌우, 거리에 있는 반 꾸온 야안 을 추천하니다.
* 쏘이쎄오  
  찹쌀밥에 간 녹두가 올라가고 튀긴 양파가 올라간 저렴한 식사  
  추가 토핑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주로 아침과 점심에 베트남 사람들이 간단한 식사용! 하노이 환검호 주변에 응웬 후 후안 거리에 있는 Xoi Yen가게가 유명하다.

하노이 여행간 주의사항

* 월, 금요일에 쉬는 곳들이 많아 운영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 관광지에 브레이크 타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운영시간 확인하세요
* 겨울이 아닌 계절은 날씨가 매우 더우니 무리한 계획은 금지

호치민

관광지

* 안동시장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벤탄시장! 아직은 덜 유명하지만 없는게 없는 엄청난 규모의 안동시장!, 안동시장은 호치민 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다. 벤탄시장은 관광객이 많아 엄청 붐비는 반명에 안동시장은 그 보다 덜 해서 전통시장을 조금 더 편하게 구경할 수 있다.
* 벤탄시장  
  호치민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관광객에게 가장 유명한 벤탄시장  
  옷이면 옷 액세서리면 액세서리 없는게 없는 시장! 관광객에게는 가격이 비쌀 수 있으니 적당한 흥정은 필수!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하는 곳이라 다양한 관광상품들을 여기서 다 구입할 수 있다
* 프리마켓 & 사이공 센트럴 마켓  
  주말마다 열리는 프리마켓! 각종 옷과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즐비한 이곳!  
  타투, 캐리커쳐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제공되니 주말을 끼고 호치민을 가신다면 한번쯤은 들려도 후회하지 않을 초이스  
  저렴한 가격에 득템 기회가?  
  옆에 있는 사이공 센트럴 마켓에서 해산물, 고기, 과일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니 꿀잼꿀잼 빅 꿀잼!

호치민 꼭 먹어볼 음식

* 후띠우  
  호치민에서 맛볼 수 있는 이색 쌀국수  
  퍼와 비슷하지만서도 조금 다른 남부식 쌀국수로 단 맛을 내는 육수에 반건조 면을 넣어 쫄깃한 맛이 일품. 돼지고기나 새우, 해산물 등 풍부한 고명이 같이 나온다.  
  추천 맛집 : 후 띠유 남방 투이 덩, 뜽홍 포크찹 누들, 퍼 꾸인
* 반쎄오  
  취향대로 고를 수 있는 베트남식 빈대떡  
  안먹으면 섭섭한 배트남 대표 메뉴. 쌀가루 반죽에 새우나 돼지고기, 숙주를 비롯한 각종 채소를 듬뿍 넣고 접어 반달 모양으로 부친다. 바삭하게 구워 빈대떡과 겉 식감은 비슷하나 속은 다양한 재료로 꽉 차 빈대떡에게 익숙한 한국인에게 이색적인 맛을 선보인다.  
  추천 맛집 : 코아이, 반쎄오 46A
* 껌 땀  
  한식이 그리워진다면 한번쯤은 먹어봐도 괜찮은 음식. 쌀밥위에 구운 갈비는 만국 공통 맛있는 조합.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덮밥과 비슷해 베트남 음식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거부감 없이 주문하기 좋은 메뉴. 숯불에 구워 숯불향이 나는 갈비를 흰 쌀밥에 곁들이면 그것이 바로 밥도둑  
  추천 맛집 : 껌땀 칼리, 냐항 응온, 덴 롱 레스토랑
* 까 코 또  
  달콤 짭조름한 생선 조림. 남부 지방에서 가장 사랑받는 매뉴 중 하나인 말린 메기탕. 코코넛 주스와 생선소스인 느억맘, 생선을 뚝배기에 넣고 조린 베트남식 생선 조림, 매콤달콤하면서 짭조름한맛이 단짠매의 최고의 조합.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추천 맛집 : 씨클로 레스토, 쿡 각 꾸안, 로얄 사이공 레스토랑

호치민 여행간 주의사항

* 교통수단 이용요금  
  택시 뿐 아니라 베트남에서는 쎄옴이나 씨클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특히 쎄옴이나 씨클로를 이용전에는 반드시 흥정을 하게 되는데 정확한 이동경로 및 시간을 얘기하고 호객행위를 당하기 보다는 공인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택시를 이용할때는 미터기를 키지 말고 목적지 까지 가격을 협상한 후 완료되면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물은 사서 마시기  
  비단 호치민 뿐만 아니라 베트남 수돗물은 석회질이 많은 관계로 잘못 시음했다가는 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지 교포분들도 물을 꾸준히 구입해서 드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지 회사에서 만든 물보다 네슬레에서 만든 Lavie라는 물을 추천합니다
* 소매치기  
  유럽을 가서도 주의해야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오토바이 이용이 많은 나라인 만큼 범인을 잡기도 힘들고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되도록이면 백팩이나 몸에 밀착되는 가방을 이용하시는걸 추천합니다

# 다낭

다낭 놓치면 아쉬운 여행지

* 미케비치  
  다낭 2대 해변 중 하나이며 가장 유면한 해변, 세계 6대 해변에 선정되기도 한 이곳은 럭셔리 리조트들이 이 주변에 즐비하며, 수영과 선탠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빈다. 여행지의 정석같이 야자수와 비치파라솔 및 의자도 잘 구비가 되어있어 휴향을 맘껏 즐길 수 있다. 저렴한 가격의 해산물 레스토랑도 많으니 이 곳에서는 풍족히 즐기도록 하여라
* 논누옥 비치  
  다낭 2대 해변 중 하나이며 푸른 바다를 비교적 조용하게 즐길 수 있는 탁 트인 해변, 백사장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이 곳 주변에도 고급 리조트들이 많아 선택의 폭이 넓고, 미케비치도 일몰과 일출로 유명하지만 현지인들의 마음속에는 논누옥비치의 일목이 원탑이라고 전해진다.
* 까오다이교 사원  
  차분한 분위기의 작은 사원으로 하얀문 앞에 놓인 중국식 사자상이 웅장한 자태를 뽑낸다. 사원이 아름답고 예술적인 분위기를 뽐내며 중앙 제단 뒤에 있는 독특한 큰 눈 인형도 상당히 인상적이다. 베트남 전통 5교를 바탕으로 혼합 종교를 만나볼 수 있는 까오다이교 사원. 이 곳에 방문해 신흥 종교도 접해보고, 베트남의 예술적인 디자인을 느껴보는건 어떨까
* 바나 힐  
  다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피서지 중 하나인 바나 힐. 한 때 프랑스인 피서지로 개발된 이곳은 5042m에 달하는 세계 제일의 로프웨이가 유명하다. 1291m 정상에서 베트남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수 있는 곳. 바나 힐 테마파크에서 롤러코스터와 프랑스 정원, 선물 상점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베트남 속 작은 유럽이라 할 만한 곳`

# 호이안

# 사파

사파호수를 중심으로 중심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카페나 음식점도 주변에 즐비. 호수와 그 주변을 돌아보는데 1시간이면 충분하다.  
19세기 중반 베트남을 식민지로 삼았던 프랑스에 잔재가 많이 남아있으며, 프랑스의 느낌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베트남의 느낌과 적절히 잘 섞여진 관광도시

사파 가볼만한 여행지

* 노트르담 성당  
  사파광장 옆에는 노트르담 성당이 있다. 베트남에는 아직 프랑스의 잔재가 곳곳에 많이 남아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아닐까 싶다.  
  노트르담 성당 옆으로 난 길을 따라 조금 걸어가면 계단식 오르막길이 나오는데, 조금 더 올라가면 함룽산 매표소 입구가 나온다. 입장료는 7만동(약 3500원)으로 비싼 느낌이긴 하지만 사파 여행에서 한번쯤은 꼭 가볼 만한 곳이다. 올라가는 길도 아기자기하고 이국적인 풍경이 연속적으로 펼쳐져 지루할 틈이 없다. 이곳 전망대에선 아름다운 사파의 전경을 볼 수 있다.
* 라오차이, 타반 마을 트레킹  
  라오차이와 타반 마을은 몽족이 사는 마을인데 유명한 깟깟 마을 보다는 조금 멀지만 비교적 사파시내에서 가까워 현재는 많은 여행자가 트레킹을 위해 찾는다. 전통복장을 한 트레킹가이드와 함께 오전에 출발해 오후에 돌아오는 반나절 트레킹코스가 보통 미화 15달러에서 20달러 정도이다. 부족 마을에서 1박을 하고 좀 더 먼 곳까지 다녀오는 코스가 30달러에서 많게는 50달러 선이다.  
  좀 비싸지만 가이드의 집에서 하루 묵으며, 더 가까이에서 그들의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은 선택이다. 직접 홈스테이를 예약하면 보다 경비를 아낄 수 있고 홈스테이를 운영하는 경우 그 마을 및 주변의 볼거리와 관광을 위한 여행가이드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비교적 저렴하게 트레킹가이드를 해주기도 하므로 괜찮은 선택이다.
* 판시판 레전드(케이블카)  
  판시판 산은 해발 3143m로 인도차이나 반도를 통틀어 가장 높은 산이다. 등산을 좋아하고 어느 정도 험한 산도 문제없다면 정상까지 등반을 해봄직도 하다. 걸어 올라가는 게 힘들거나 일정상 등반에 소요되는 시간을 할애하기 힘든 경우에는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된다.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약 100미터 정도만 계단으로 올라가면 정상에 다다른다. 이 케이블카는 중간에 쉬지 않고 6292.5m를 가는 세계 최장거리의 케이블카이다. 판시판 산까지 약 30분 정도가 걸린다. 가는 동안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 그야말로 장관을 볼 수 있다. 특히 8~9월은 빛도 좋고 사파여행의 최적기라 할 만하므로 이 기간에 케이블카에 탑승한다면 어디서도 보지 못한 장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판시판 정상까지 왕복티켓의 가격은 60만 동(약 3만 원).

맛집 불모지 사파에서 먹을 만한 음식

1. 리틀 사파  
   맛집 불모지 사파에서 그나마 한국인 관광객에게 환영받는 음식저인 리틀 사파. 거리에서만 먹다가 음식점에 들어가면 비싸지 않을까 하는 고민은 그만! 가격차이는 있지만 저렴한 편입니다. 베트남 현지 음식도 있고, 양식도 있으니 마음에 드는걸로 초이스해서 맛있게 먹으면 끝!  
   추천 음식 : Fried Pork Sweet (68,000동) 맥주안주로 최고!

사파 여행 준비물

* 긴 소매 옷  
  한낮에는 반소매를 입어도 좋을 날씨이긴 하지만, 사파의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서늘한 고산기후 때문에 경량파카나 바람막이 점퍼를 많이 파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여름철인 8월초 까지도 기온은 오르지만 상황은 비슷하다.
* 트레킹화  
  동네 자체가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대부분이고 트레킹이 위주인 여행지이다. 무거운 등산화보다는 트레킹화를 준비하되 계절에 따라 두께를 달리해서 가져가면 좋을 듯 하다. 가죽으로 된 신발은 트레킹하는 동안 물에 젖어 무거워지거나 오물이 묻으면 닦기 힘든점을 고려하면 피해야할 선택지이다.
* 선크림  
  여름이 시작되는 6월부터 10월 사이는 기온이 다소 상승하고 햇빛이 강해지므로 이 시기에는 여행하는 사람들은 선크림을 챙겨갈 것을 추천한다.
* 유분이 많은 로션  
  고산지역인 사파는 유분함량이 많은 로션이 유용하다. 특히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하다 보면 사파의 기후에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느끼는 여행객들이 많다.